

## 용암이 만든 천연동굴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의 동굴들은 오랜 시간동안 원형의 모습을 간직해 왔다. 신비로운 동굴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공간이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였다. 유네스코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의 동굴에는 다양한 역사, 문화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만장굴길**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62-4 ~ 구좌읍 행원리 산29-3(약 3km)

**월정서로**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17-1 ~ 구좌읍 월정리 1400-14(약 1.7km)

**행원로**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82-1 ~ 구좌읍 한동리 1543-2(약 3.5km)

**덕행로**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1144 ~ 구좌읍 덕천리 308-4(약 5.8km)

**한동로**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064 ~ 구좌읍 한동리 4300-1(약 4.9km)

## 만장굴길 | 만장굴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와 김녕리, 행원리에 걸쳐 이어지는 **만장굴길**은 유명한 관광지인 만장굴과 연결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만장굴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여러 동굴 중에 유일하게 개방이 되어 있어 동굴 내부를 구경할 수 있다. 용암동굴 중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장굴은 총 길이가 7.4km에 이르는데 이 중 1km 정도만 진입이 가능하다. 동굴 곳곳에는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용암석순, 용암선반, 용암표석 등이 있고, 개방구간의 끝에는 7m가 넘는 거대한 용암석주가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다.

만장굴이 처음 발견되기까지는 부종휴 선생님과 꼬마탐험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1940년대만 해도 만장굴은 동굴 입구 정도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있을 정도였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종휴 선생님은 1946년에 당시 재직하고 있었던 김녕초등학교 학생 30여명과 함께 만장굴을 탐험하기 위한 동굴탐험대를 조직했다. 횃불을 들고, 기름통을 짊어지고, 짚신을 신고서 동굴로 들어가 2m짜리 노끈으로 동굴의 길이를 재어나갔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울퉁불퉁한 바닥을 횃불 하나에 의지해 수 킬로미터나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번에 걸친 탐험 끝에 탐험대는 6.4km까지 만장굴의 길이를 측정했다고 한다. 당시 탐사 기술로는 꽤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부종휴 선생님이 이 동굴을 만장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세간에 발표를 했다. 만장굴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부종휴 선생님은 만장굴에서 동굴결혼식을 올리는 등 만장굴을 알리는데 힘썼다. 오늘날 만장굴은 용암동굴의 신비로운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만장굴의 북쪽에는 또 다른 동굴인 김녕사굴이 있다. <탐라순력도>의 김녕관굴 편에서는 이 동굴을 둘러보는 제주목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김녕사굴에는 예전에 커다란 뱀이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마을에 화를 가져오지 않게 뱀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매년 어린 처녀를 바쳐야만 했다. 제주에 부임한 서련관관은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뱀을 퇴치하겠다고 나선다. 그리고는 굶을 하는 소리를 듣고 뱀이 나타나자 날쌔게 뱀의 허리와 머리를 베어 퇴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월정서로 | 월정리

만장굴길의 북쪽으로 이어진 **월정서로**는 월정리 서쪽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다. 김녕리의 동쪽에 있는 월정리(月汀里)는 에메랄드 빛 바다색과 모래사장, 그리고 커다란 풍력발전기의 조화가 독특한 매력을 뽐어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만장굴을 지나 월정리의 해안까지 이어진다. 월정리는 여느 시골에서 볼 수 있는 한적한 마을이지만, 마을의 땅 속에는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 등이 수십만 년의 비밀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 중 용천동굴은 전봇대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어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굴이다. 용천동굴은 세계적으로 희귀하게 용암동굴이면서도 석회질 생성물이 동굴내에 가득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동굴 안에 있는 천년호수와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도자기들은 과거 탐라시대의 비밀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로써 주목받고 있다.

## 행원로/덕행로 | 행원리와 덕천리

**행원로**는 행원리(杏源里)의 중심도로이다. 이곳은 과거에 어등포 또는 어등개로 불렸다. 어등포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물살에 물고기들이 포구로 밀려들어 온다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추진된 풍력개발단지가 있어 해안가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등포는 비운의 왕 광해군이 제주에 처음 도착한 곳이기도 하다.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난 후 강화도로 유배를 갔다가 1637년 제주도로 유배지가 옮겨진다. 강화도를 떠난 광해군 일행의 배는 바람이 심한 어등포에 도착한다. 이때까지 광해군은 제주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궁궐과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에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광해군의 절망감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광해군은 제주성 안에서 가시울타리에 둘러싸여 유배생활을 했다. 그리고 제주에 유배된 지 4년 만에 한 많은 삶을 마감했다.



어등포

행원리의 남쪽에는 덕천리가 자리하고 있다. **덕행로**는 이 두 마을을 이어주는 길이다. 덕천리(德泉里)는 구좌읍에서 송당리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마을에 있는 모산이물이 덕이 있는 물이라고 해서 덕천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 마을 역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이어지는 땅 속에 10개가 넘는 동굴이 있다. 거기다 땅 위로는 6개의 오름이 있어 오름이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운치있는 오름과 신비한 동굴로 제주의 독특한 자연을 잘 보여주는 마을이다.

## 한동로 | 한동리

**한동로**는 행원리와 이웃하는 마을인 한동리의 중심도로이다. 한동리는 원래 괴이리(槐伊里)라고 불렸었다고 한다. 마을 이름이 한동리로 바뀌게 된 유래에는 도깨비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이 마을에는 어째서인지 도깨비불이 자주 출몰했다. 바다에서 날아든 도깨비불은 삼시간에 마을의 초가집을 태워버리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당번을 서서라도 도깨비불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은 끝에 마을 이름에 괴(槐)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한라산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한동리(漢東里)로 바꿨다. 마을에 불이 자주 나니 불을 다스리기 위해 한라산 백록담의 물을 끌어온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 이후로는 다행히 도깨비불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